

순천시, 전국 최고 도서관 도시 꿈꾼다

문화거점이자 도서관 도시 도약 천명 신규 도서관 건립·작은 도서관 확충 시민 지혜 나눔 문화 확산 적극 추진



신대도서관 조감도.

순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거점이자 도서관 도시로의 꿈을 키운다.

순천시는 시민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문화 거점으로서의 도서관 도시를 실현해 전국 최고 도서관 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올해 도서관 정책의 목표를 ▲책 쓰기, 자료수집, 자료기증 및 공유를 통한 시민 지혜 나눔 문화 확산 ▲위드 코로나 시대, 위로와 치유의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문화 거점 시설로서의 도서관 역할 확대 및 확충으로 설정했다.

특히 전 시민 책 쓰기 사업 추진을 통한 세계 기록 도전을 중심으로 범시민 책 모으기(순천 인물 자료) 운동 전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치유와 위로의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신규 도서관(신대, 어울림 도서관) 건립 준비 및 작은도서관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를 '시민 1만 권 책 쓰기' 도약의 해로 정해 시민 100명당 1권의 책을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과 직원에게 출판비용 일부와 교정 등 출판지원을 통해 책 출판을 독려하고, 시립도서관 8곳에서 2400명을 대상으로 책 쓰기 강좌를 운영한다.

순천시는 또 '위드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도서관 정책을 수립했다. 대출 제한 수를 20권에서 30권으로 확대했다. 외부활동이 조심스러운 현 상황에서 시민들이 집안에 머물며 독서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의도다.

여기에 대여형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도서관에 운영시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와 24시간 이용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의 도서관 프로그램' 역시 코로나19로 인

한 상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서관 역할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리모델링을 통해 미술관 및 아카이빙 공간으로 거듭난 그림책도서관(옛 중앙도서관)에서 1년 내내 '그림책 원화 전시'가 이어진다. 삼산도서관에서도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2개월간 무료로 대출할 수 있는 '미술품 대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또 연향도서관에는 LP, 음악CD 등을 갖추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자료실이 마련됐고, 조례호수도서관 옆 '해 지면 열리는 미술관'은 이미 순천 야간 경관의 명소가 됐다.

순천시는 신대와 오전지역에 각각 문화거점 도서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면적 5642㎡,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2년 8월 준공될 예정인 신대도서관이 대표적이다. 이 도서관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신도심 개발에 따른 문화 복합공간이자 생태문화도시에 걸맞는 시민장의 공간으로 설계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서관을 도서의 대출·반납이 이뤄지던 고전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순천시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도서관을 통한 '독서'와 '책 쓰기'가 공유와 위로의 문화로 정착된다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 아동범죄 예방 '스마트 초인종' 전달식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지용)는 지난 19일 지역 내 아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랑나눔 복지재단에서 '스마트 초인종' 전달식을 가졌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전달식에는 방기태 광양시 교육보육센터 소장,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김재경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김경수 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등이 참석했다.

광양제철소는 전달식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한부모·저소득층·다문화가정 113가구를 선정해 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면도 마음 놓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마트 초인종을 우선 전

달했다. 또 맞벌이·1인 여성 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광양시 안전취약계층 253가구를 선정했다. 총 366가구에 스마트 초인종이 전달된다.

'스마트 초인종'은 집 안에 설치하면 부모가 외출 중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가 잘 있는 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위급시 서로 영상통화 가능한 기기다.

광양제철소는 광양경찰서의 제안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포스코1%나눔재단 기탁금 7400만원을 활용해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이후 광양시청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발해 오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김재경(왼쪽)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김경수 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방기태 광양시 교육보육센터 소장,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이 지난 19일 스마트초인종 전달식을 갖고 있다. (광양시 제공)



지리산 남악제례 봉행
유의 제례 행사다.

구례군은 절기상 곡우(穀雨)인 20일 화엄사 경내에서 지리산남악제례를 봉행했다. 남악제례는 삼국시대부터 나라의 평화, 백성의 안정, 풍년을 기원하며 나라의 주도로 남악(지리산)산신에게 올리던 제사로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민족 고유의 제례 행사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돌산갯 농촌융복합사업 공모 선정

2024년까지 총 30억 원 투입 돌산갯 복합체험센터 등 설치

여수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19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여수돌산갯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30억 원을 투입해 돌산갯 복합체험센터 설치, 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가공설비 구축 등 공동인프라 시설이 설치된다.

돌산갯 디지털 및 HMR(가정간편식) 상품, 돌산갯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자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융복합지구로 지정해 전·후방 산업이 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돌산갯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공모에 뛰어들어 도(서면, 발표)와 중앙심사(서면, 현장, 발표)를 거쳐 9개 시·군 중 최종적으로 4개 지자체에 선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1·2차 산업 중심의 여수돌산갯 산업이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3차 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업 간 상호연계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해경,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단속

여수해양경찰서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연중 일본산 수산물의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특별단속 시작해 올해 말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오는 29일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부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에서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

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우리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 불법유통 일본산 수산물 특별단속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중점 어종으로는 일본산 활참돔, 냉장명태, 활우렁쉥이(멍게), 활방어, 활가리비 등 5개 어종 및 갈치, 홍어, 맥장어 등 기타 3개 어종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군, 삼기 원등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

곡성군은 올해 삼기 원등지구(793필지, 24만㎡)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일면 중방지구(554필지, 29만㎡), 곡성 대평지구(932필지, 36만㎡), 오곡덕산지구(387필지, 29만㎡), 죽곡 당동지구(694필지, 59만㎡), 곡성 구원지구(755필지, 43만㎡)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곡성 신리지구(265필지, 19만㎡), 곡성 신기지구(809필지, 32만㎡), 죽곡 용정지구(242필지, 10만㎡)는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삼기 원등지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무성종합건설을 측량수행자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 삼기 원등지구는 4월부터 5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